

경주 월성의 역사공간 이미지 및 관광객 이용행태 분석*

강태호* · 박종구** · 반상*** · 김상구****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경주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

Tourists' Historical Image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for Heritage Site at Wolseong Palace in Gyeongju

Kang, Tai-Ho* · Park, Joung-Koo* · Pan, Xiang*** · Kim, Sang-G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guk University

**Major of Tourism & Leisure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Dept. of Tourism,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visitors' image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of Wolseong palace in Gyeongju. This area has been a royal palace during Silla periods. So many scholars dedicate to the protection of this historical-cultural heritage. The research process consists of two main steps, such as on-site field investigation and survey research. The data were collected in summer and autumn. Collected data i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to describe visitors' behavior, time, space, and then processed by statistical metho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hortage of programs and facilities. The result shows most visitors consider Wolseong palace as a pathway for walking. Hence better functions should be developed to attract more visitors but with least effect to historical remains. The founding is that increasing programs for history exploration, enhancing lighting installation, facilities, plant arrangement, road condition and so forth would be suggested.

Key Words: Gyeongju Wolseong, Cultural and Historic Heritage, Behavior Pattern Survey, Preservation, Conjugation

국문초록

경주 월성은 신라시대 궁궐이 있었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궁궐터로 왕경 경주의 대표적인 역사유적이다. 본 연구는 경주 월성을 대상지로 역사공간 이미지와 관광객들의 이용행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 두 단계로 실시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행태, 시간, 공간별로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경주 월성의 주된 이용행태는 서서 하는 행위, 앉아서 하는 행위, 놀이/유희 순으로 나타나고, 일반적인 역사문화유적지와 비교해 이용행태는 매우 단조로운 것을 알 수 있다. 경주 월성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주 진입로의 역할기능을 강화하면서 탐방객들을 월성 내 타 공간으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각 동선코스를 사전에 안내하는 표지판, 야간조명, 식생정비, 도로정비 등을 필요하다.

주제어 : 경주월성, 역사문화유적, 이용행태, 보존, 활용

* 본 연구는 경주시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Pan Xia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Gyeongju 780-714, Korea. Phone: +82-54-770-2232, E-mail : slimlander@dongguk.ac.kr

I. 서론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경주는 산과 물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역사유적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역사문화도시이다(강태호, 2010). 경주 월성은 신라 궁궐이 있었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궁궐터로 왕경 경주의 대표적인 역사유적이다. 성의 모양이 반달처럼 생겼다 하여 '반월성' 또는 '신월성'이라고도 하며, 왕이 거주하였던 '재성(在城)'이라고도 한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천년 신라의 궁궐이 있었던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궁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성(城)의 흔적들도 방치되고 있어 역사자원으로서 가치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주5일제의 시행 및 KTX 경주 통과로 경주를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역사문화형 교육 체험, 체류형 휴양활동에 대한 여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경주 월성은 지역주민들의 체육/여가활동, 도시숲의 녹지 공간, 산책중심의 정적 활동공간으로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 관광객들은 월성을 주된 관광목적지로 인식하기보다는 안압지, 동부사적지, 첨성대 등을 관통하는 이동통로로만 이곳을 이용해 옛 궁터의 역사적 활용측면에서도 그 역할이 모호한 편이다.

월성지구는 신라 왕경의 중심지로서 도심 안에 위치하고 있는 역사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역사적, 생태적, 고고학적 접근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이용자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역사경관으로서 월성, 시민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가 살아 숨 쉬는 문화향유 중심의 월성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곳을 찾는 지역주민 외에 관광객들이 느끼는 공간적 이미지 형성과 만족 여부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또한 경주 월성의 하계, 추계시즌별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용패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해 어떻게 해야 경주 월성의 활용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거의 없다. 경주 월성의 공간이미지 형성 및 관광객 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관광명소로서 관광매력 및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주 월성 탐방객의 레저, 휴식 등을 여가활동, 지각, 의미, 기억을 담아내는 역사유적의 공간이미지 조사 및 전반적인 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 나아가 이용객들의 이용행태를 시간대별, 공간별로 파악해 경주월성의 합리적인 이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환경지각은 인간의 공간인지 과정에서 역사경관의 시각상, 심상 이미지 등과 어울려 그 환경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고도 포함될 수 있다(구은연 등, 2011). 또한 공간이미지는 공간의 환경에 대하여 이용자가 마음속에 느끼고

인지되는 감각적 영상을 의미한다(황기원, 1995; Lynch, 1960)는 환경에 관한 좋은 이미지가 인간의 정서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관광목적지로서 사람들은 형성된 공간이미지에 기대를 품고, 그 장소를 방문의 주된 동기로 삼기도 한다.

방문객들은 환경이미지의 지각을 물리적, 비물리적 요소 외에도 문화적 요소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인지과정, 감정과정, 그리고 해석과정을 통해 다양한 공간이미지 구성요소인 이동성, 장소성, 쾌적성, 문화성, 상징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환경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도의 심리적 체험으로 통합적으로 환경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의미파악을 수행한다.

특히 전통역사공간은 자연친화성을 주된 공간특성으로 인식하여 인공구조물마저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동일시되며, 하나의 통일된 방향성과 연속성을 유지, 자연적 요소와 인위적 요소가 적절히 배치되어질 때, 방문자의 공간이 동시 다양한 경관의 변화를 제공할 수 있다(최승담 등, 2007).

기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만족도와 이미지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관광객 만족도는 공간이미지에 영향을 받고 이미지가 좋을수록 관광객의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가설들을 검증하였다(Bigne et al., 2001). 국내에서도 조정숙과 김남조(2001)의 연구에서 인사동을 방문한 이용객이 지각한 전통문화공간의 이미지 요인이 전체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유적지와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지만, 경주 월성처럼 문화유적 가치가 높고 생태적 민감성이 높은 지역에서 역사공간의 이미지 관련 연구와 이들 공간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태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기존 경주 월성에 대한 연구는 신라 왕경의 궁궐터로서 역사적 상징성 및 왕궁유적의 연구(남승호, 2004; 이한상, 2005), 생태적 특성에 따른 환경보존(임원현 등, 2009), 해자(壕宇) 등 특정 전통조경의 생태환경(정용조 등, 2010), 지하유적에 대한 지질학적 탐사 등 고고학적 접근(오현덕 등, 2004) 및 미술사학적 접근(최용완, 1964)에 그쳤다.

특히, 월성의 장기간 역사공간 훼손과정을 조명하는 공간변화 구조, 시대적 변천과정, 발굴상황(민덕석, 1990; 이상준, 1997; 김낙중, 1998; 남승호, 2004; 이한상, 2005; 이경섭, 2008; 강태호, 2010; 양정석, 2010) 등이 연구되었으며, 역사관광지로 이용행태, 시간대/공간적 이용패턴 등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 않아 역사유적의 휴식과 레크리에이션 측면에서 이용자들을 고려한 환경개선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이용행태와 관련된 최연철 등(2000)의 연구에 따르면 "근린공원의 주·야간 이용행태에 관한 기초적 연구"에서 행태관찰에는 관찰자에 의한 육안관찰과 일종의 시간차 또는 간격촬영방법인 Time-Lapse 방법을 이용하여 행태밀도, 행태유형, 추적조사에 의한 동선분석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김효경 등(2010)도 "도시공원 내 오픈스페이스 이용자 행태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행태지도작성법(Behavior Mapping)으

로 관찰하고, 대상지 공원의 이용자 행태, 발생 빈도수, 참여자 수, 물리적 자원, 발생 장소(위치)를 실증연구하였다.

그러나 유적지에 대한 이용 현황, 이용 상호성 등을 주제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정민채(2009)는 “역사문화유적지의 교육성·브랜드가치·선택속성이 관광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광자의 만족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유적지의 교육성, 브랜드 가치, 목적지 선택기준, 목적지 선택속성에 따라 국내 문화 관광지의 만족과 재방문 및 타인의 추천에 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하였다.

월성의 경우, 교육성, 브랜드가치, 관광지 선택기준, 선택속성, 방문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사 등 모든 분야에서 매력도가 높은 유적이다. 그러나 깊이 있는 관광해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관람자들은 이곳에서 관광매력을 거의 느끼지 못해 향후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환경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경주 월성 탐방객의 레저, 휴식, 피크닉 외에 다양한 여가이벤트 활동을 유발하는 살아 있는 역사유적의 교육현장으로써 탐방객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실제로 이용객들의 이용행태(Walking-서서 하는 행위, Seating-앉아서 하는 행위, Playing-놀이/유희) 분석을 통해 시간대별, 공간별로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경주월성 유적의 환경조성 방안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지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는 신라 천년의 궁성지로서 사적 제16호로 지정된 곳이다(지정면적: 300,229m²). 북쪽으로는 경주 시내가, 남쪽으로는 남천을 건너 불교의 성지인 남산이 이어져 있다. 이처럼 월성은 자연스러운 숲과 자연형 하천인 남천이 흐르고 있어 경관생태학적으로 양호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월성 궁터의 주요 공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안압지방향 입구의 경우 가장 많은 이용객이 일시에 몰리는 진입공간이다. 시설물은 내부안내판과 외부에 있는 선덕여왕 영화드라마 촬영장소 포토존이 있어 재미와 다양한 공간이미지를 제공하지만 신라 궁터의 옛 고풍스러운 이미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편이다. 관리인이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해 편리한 반면 자연적 경관은 많이 훼손된 곳이다. 한편, 동부사적지 입구방향은 주변의 침성대, 정주향교 등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울리나 전반적으로 단조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석빙고 주변은 훼손된 성곽 및 소나무 군락의 잔뿌리가 많이 노출되어 역사경관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족으로 무질서한 느낌을 준다. 역사유적의 보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계 및 추계시즌에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휴식과 레크리에이션

을 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월성에서 가장 무질서, 불비는 곳이다. 월정교 주변은 녹음식재가 형성되어 이용객이 거의 없어 고적감 및 한적한 공간이미지를 지니며, 배드민턴장은 월성에서 유일하게 인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부실로 불결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젊은 연인층 및 가족들은 석빙고→선덕여왕 포토존의 좁은 동선상에 일시에 몰려 매우 혼잡한 편이나,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해 시원한 느낌을 준다. 또한 화려한 드라마 촬영물 시설로 인해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편이다.

설문조사는 문헌연구, 인터뷰 및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2010년 8월 8일(하계기준)~10월 22일(추계기준) 사이에 주중과 주말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공간이미지와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여름(5회 이상)과 가을(5회 이상) 시즌으로 구분해 총 10번 이상 현장에서 이용실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대상자는 월성 탐방을 마친 관광객(n=310)을 대상으로 임의편의 추출 방식(convenient sampling)을 통해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름이 165명(53.2%), 가을 145명(46.8%)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15를 통해 빈도조사 및 평균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한편, 월성의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함께 각 주요지점별 이용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사는 설문조사 기간을 활용하였으며, 필요시 별도로 월성구역을 이용자의 분포현황에 따라 5개의 구역으로 구분해 추가로 이용행태 파악을 조사하였다. 현장조사에는 D대학 박사과정생이 직접 현장조사에 참여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용행태 조사는 주·야간으로 구분 후, 육안관찰(Time-Lapse 방법)을 통해 조사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용행태(Walking-서서 하는 행위, Seating-앉아서 하는 행위, Playing-놀이/유희)를 구분해 이용행태를 파악하였다.

표 1. 이용행태조사 분류기준

행태분류	부호	내용
서서 하는 행위 (Walking)	W1	걸음 (통행)/유모차 포함: 통행 위주의 도보 급하게
	W2	무엇인가를 구경하면서 산책함: 주로 이동 동선상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것, 토성 위를 탐방, 걷거나, 산책하는 모든 행위
	W3	정지한 채 서서 교육활동(안내판 읽기, 자녀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등 행위)을 함
	W4	기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면 위에 표기
앉아서 하는 행위 (Seating)	S1	앉아서 그냥 휴식 또는 쉼, 사색/명상 등을 함, 그늘에서 누워서 잠을 잡
	S2	앉아서 물, 음식 등을 먹음
	S3	앉아서 안내지도, 책 등을 봄, 토론하는 것처럼 보임
	S4	기타
놀이/유희 (Playing)	P1	사진 촬영을 함
	P2	자전거를 탐
	P3	운동을 함
	P4	기타

2. 설문지 구성

조사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방문동기, 동반자 유형 등에 대한 항목을 통해 전반적인 이용

표 2. 이용객특성 분석결과 (%)

		여름	가을	합계	
성별	남	81(49.1)	83(57.4)	164(52.9)	
	여	84(50.9)	62(42.6)	146(47.1)	
	합계	165(100.0)	145(100.0)	310(100.0)	
연령	10대	4(2.4)	-(-)	4(1.3)	
	20대	32(19.4)	37(25.7)	69(22.4)	
	30대	53(32.1)	45(31.1)	98(31.6)	
	40대	47(28.5)	43(29.7)	90(29.1)	
	50대	21(12.7)	17(11.5)	38(12.1)	
	60대 이상	8(4.8)	3(2.0)	11(3.5)	
	합계	165(100.0)	145(100.0)	310(100.0)	
직업	사무직	33(21.0)	23(17.3)	56(19.3)	
	연구기술·전문직	24(15.3)	23(17.3)	47(16.2)	
	서비스직	24(15.3)	16(12.0)	40(13.8)	
	가정주부	22(14.0)	16(12.0)	38(13.1)	
	학생	20(12.7)	12(9.0)	32(11.0)	
	행정 관리직	7(4.5)	19(14.3)	26(9.0)	
	생산직 및 노무직	6(3.8)	10(7.5)	16(5.5)	
	판매직	4(2.5)	10(7.5)	14(4.8)	
	농, 축, 임, 수산업	2(1.3)	3(2.3)	5(1.7)	
	기타	15(9.6)	1(0.8)	16(5.5)	
	합계	157(100.0)	133(100.0)	290(100.0)	
	거주지	서울	32(19.4)	10(7.4)	42(13.7)
		경기도	25(15.2)	10(6.8)	35(11.2)
강원도		9(5.5)	-(-)	9(2.9)	
충청도		12(7.3)	2(1.4)	14(4.5)	
경상도		73(44.2)	121(83.2)	194(62.6)	
전라도		14(8.5)	2(1.4)	16(5.1)	
합계		165(100.0)	145(100.0)	310(100.0)	
방문동기	역사유적을 구경	74(45.0)	45(31.1)	119(38.5)	
	자녀교육	38(8.1)	27(18.9)	65(21.1)	
	휴식/산책	35(21.3)	39(27.0)	74(24.0)	
	친목/단합	6(3.6)	19(12.8)	25(7.9)	
	학술적 관심	5(3.0)	5(3.4)	10(3.2)	
	더위를 피함	-(-)	6(4.1)	6(1.9)	
	운동/조깅	2(1.2)	3(2.0)	5(1.6)	
	기타	5(3.0)	1(0.2)	6(1.9)	
	합계	165(100.0)	148(100.0)	310(100.0)	
	동반자	개별	6(3.6)	3(2.0)	9(2.8)
연인/친구/동료		65(39.6)	56(38.8)	121(39.2)	
가족		88(53.3)	77(53.1)	165(53.2)	
3인 이상 단체		5(3.0)	7(4.8)	12(3.8)	
기타		1(0.6)	2(1.4)	3(0.9)	
합계		165(100.0)	145(100.0)	310(100.0)	

* 직업의 경우 결측치를 반영한 수치임

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만족도란 ‘관광객이 사전 기대감을 가지고 역사명소를 방문 후 투자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흐뭇함의 정도’로 조작적 정의된다(최승담 등, 2007). 구체적 측정항목은 월성지역을 방문 후, 사전에 기대한 만큼 성취한 만족 여부(박창규 등, 1998)로서 7점 리커트척도(‘1’=전혀 만족하지 않음, ‘4’=보통임, ‘7’=매우 만족함)의 단일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최근 만족도는 측정치의 합의 지수보다 단일항목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는 편이다.

월성에 대한 역사공간의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자의 지각과 의미를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의미차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을 사용하였다. 의미차별척도는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한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이태희, 1997), 공간이미지 측정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조정숙 등, 2001). 본 연구에서는 전통역사문화공간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관련 기존 연구(이태희, 1997; 조정숙 등, 2001; 최승담 등, 2007) 등을 바탕으로 총 15개 문항을 추출한 후 지역에 위치한 D 대학의 조경학과와 호텔관광대학원 박사과정생 15명에게 각 항목의 타당성을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항목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역사문화재 관련 전문가 교수 3인에게 최종적으로 측정항목의 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최종 설문지에서 월성이미지는 ‘재미있다-지루하다’, ‘다양하다-단순하다’, ‘깨끗하다-더럽다’, ‘정돈되어 있다-어수선하다’, ‘주변과 어울린다-주변과 안 어울린다’, ‘한적하다-붐빈다’, ‘편리하다-불편하다’ 등 월성을 방문 후 받은 인상을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각 항목별 이미지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음”부터 “매우 그러함”으로 측정하였다.

3. 이용행태 조사

본 연구에서 월성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계/추계 시즌으로 구분해, 각 시간대별로 매 30분 단위(오전 9:00부터 오후 10:00까지)로 숙련된 조사원이 각 주요 지점별 이용행태를 조사하였다. 이용행태 분석을 위해 경주 월성을 방문한 이용객들의 다양한 이용행태(Walking-서서 하는 행위, Seating-앉아서 하는 행위, Playing-놀이/유희)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이용행태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이용행태 분류기준은 기존 이용행태와 관련된 선행연구(김경계 등, 2004; 홍훈순 등, 2004) 등에서 제시된 역사문화 유적지의 이용패턴을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행태조사 분류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였다.

월성의 공간별 이용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된 이용행태 조사지점을 공간적으로 진입공간(안압지, 동부사적지), 석빙고, 주된 이동탐방로, 주요 산책통로, 성곽토성 회랑공간, 휴식쉼터, 녹지대 등으로 한정하여 관광객의 이동행태를 조사하였다. 시간대별 이용행태에 관한 조사자들의 육안관찰을 통해 행태밀

도, 행태유형 및 이동 동선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지점 들은 역사공간, 휴식공간, 관람공간, 녹지공간, 산책공간 등으로 기능이 구분되어 건강, 문화, 체육, 여가활동의 방문행태를 행태지도작성법(Behavior Mapping)으로 관찰하고, 대상지 공 원의 이용자 행태, 발생 빈도수, 참여자수, 물리적 자원, 발생 장소(위치)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응답자(n=310)는 여름기간 165명(53.2%), 가을기간 145 명(46.8%)이다. 이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164명(52.9%)으로 여성이 146명(47.1%)보다 다소 많았다. 또한 연령분포를 보면, 30대(31.6%)부터 40대까지(29.1%)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은 사무직(19.3%)과 연구기술, 전문 직의 비율(16.2%)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응답자의 거주지 현 황을 살펴보면 경상도 방문객이 62.6%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특성은 경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역사문화체험 위

주의 교육적 관심이 높은 가족여행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주 월성의 만족도 분석결과

월성의 방문 후 전체 만족도와 공간적 이미지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여름시즌에는 '만족함'에 53명(32.1%)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보통임'에 48명(29.1%), '약간 만족함'에 21명(12.7%), '매우 만족함'에 18명(10.9%), '만족하지 않음'에 11명(6.7%), '거의 만족하지 못함'에 9명(5.5%), 그리고 '전혀 만족하지 않음'에 5명(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을시즌에는 '만족함'에 41명(27.7%), '보통임'에 38명 (25.7%), '약간 만족함'에 29명(19.6%), '거의 만족하지 않음'에 15명(10.1%), '만족하지 않음'에 14명(9.5%), '매우 만족함'에 10명(6.8%), 그리고 '전혀 만족하지 않음'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월성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여름시즌이 가을시즌보다 더 방문만족도가 높았다. 그 이유는 무더운 여름기간에 경주의 도보여행에서 월성의 수려한 수목들이 제공하는 시원한 녹음공간 및 석빙고, 안압지 등을 경유해 가족끼리 휴

표 3. 경주 월성의 전체 만족도 및 공간적 이미지 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약간 그렇지 않음	보통	약간 그러함	그러함	매우 그러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알파
전체 만족도	여름	5(3.0)	11(6.7)	9(5.5)	48(29.1)	21(12.7)	53(32.1)	18(10.9)	4.73	1.924	-
	가을	1(0.7)	14(9.5)	15(10.1)	38(25.7)	29(19.6)	41(27.7)	10(6.8)			
	합계	6(1.9)	25(8.0)	24(7.7)	86(27.5)	50(16.0)	94(30.0)	28(8.9)			
재미있다	여름	11(6.8)	12(7.4)	11(6.8)	19(11.7)	27(16.7)	57(35.2)	25(15.4)	4.53	1.802	0.927 (7문항)
	가을	13(8.8)	18(12.2)	22(14.9)	31(20.9)	30(20.3)	19(12.8)	15(10.1)			
	합계	24(7.7)	30(9.7)	33(10.6)	50(16.1)	57(18.4)	76(24.5)	40(12.9)			
다양하다	여름	9(5.5)	9(5.5)	13(8.0)	20(12.3)	32(19.6)	50(30.7)	30(18.4)	4.60	1.754	
	가을	9(6.1)	17(11.5)	31(20.9)	27(18.2)	28(18.9)	20(13.5)	16(10.8)			
	합계	18(5.8)	26(8.4)	44(14.1)	47(15.1)	60(19.3)	70(22.5)	46(14.8)			
깨끗하다	여름	12(7.6)	7(4.4)	4(2.5)	11(7.0)	23(14.6)	53(33.5)	48(30.4)	4.74	2.054	
	가을	25(17.0)	20(13.6)	12(8.2)	27(18.4)	17(11.6)	21(14.3)	25(17.0)			
	합계	37(12.1)	27(8.9)	16(5.2)	38(12.5)	40(13.1)	74(24.3)	73(23.9)			
정돈되어 있다	여름	13(8.2)	8(5.1)	4(2.5)	14(8.9)	19(12.0)	53(33.5)	47(29.7)	4.73	2.043	
	가을	23(15.8)	18(12.3)	15(10.3)	29(19.9)	12(8.2)	26(17.8)	23(15.8)			
	합계	36(11.8)	26(8.6)	19(6.3)	43(14.1)	31(10.2)	79(26.0)	70(23.0)			
주변과 어울린다	여름	13(8.0)	7(4.3)	1(0.6)	12(7.4)	20(12.3)	53(32.5)	57(35.0)	4.82	2.082	
	가을	23(15.5)	22(14.9)	16(10.8)	23(15.5)	13(8.8)	24(16.1)	27(18.2)			
	합계	36(11.6)	29(9.3)	17(5.5)	35(11.3)	33(10.6)	77(24.8)	84(27.0)			
한적하다	여름	10(6.2)	11(6.8)	3(1.9)	12(7.5)	23(14.3)	55(34.2)	47(29.2)	4.80	2.013	
	가을	19(12.9)	21(14.3)	19(12.9)	22(15.0)	19(12.9)	16(10.9)	31(21.1)			
	합계	29(9.4)	32(10.4)	22(7.1)	34(11.0)	42(13.6)	71(23.1)	78(25.3)			
편리하다	여름	6(3.7)	8(4.9)	14(8.6)	24(14.8)	32(19.8)	46(28.4)	32(19.8)	4.72	1.806	
	가을	13(8.8)	17(11.5)	22(14.9)	26(17.6)	22(14.9)	19(12.8)	29(19.6)			
	합계	19(6.1)	25(8.1)	36(11.6)	50(16.1)	54(17.4)	65(21.0)	61(19.7)			

식, 피크닉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월성은 도시공원의 쉼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름에 월성 방문 후 받은 인상은 '재미있다' 57명(35.2%), '다양하다' 50명(30.7%), '매우 깨끗하다' 48명(30.4%), '정돈되어 있다' 53명(33.5%), '매우 주변과 어울린다' 57명(35%), '한적하다' 55명(34.2%), '편리하다' 46명(28.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가을에는 '재미있는 정도 보통이다' 31명(20.9%), '약간 다양하다' 28명(18.9%), '깨끗한 정도 보통이다' 27명(18.4%), '정돈되어 있는 정도 보통이다' 29명(19.9%), '매우 주변과 어울린다' 27명(18.2%), '매우 한적하다' 31명(21.1%), '매우 편리하다' 29명(19.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가을시즌에 경주 월성이 단풍으로 인해 수목경관이 우수하나 인근의 동부사적지, 첨성대 등에 비해 신라천년의 옛 성곽으로서 매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다양한 문화이벤트 및 자연체험 프로그램의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주 월성의 공간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주변과 잘 어울린다(m=4.82)>한적하다(m=4.80)>깨끗하다(m=4.74)>정돈되어 있다(m=4.73)>편리하다(m=4.72)>다양하다(m=4.60)>재미있다(m=4.5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주월성이 주변의 첨성대, 동부사적지 외에 안압지 등과 환경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 한적함을 느낄 수 있는 정적 공간으로 매력이 높은 반면, 다양한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이 없어 단조롭고, 지루함을 주는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3. 경주 월성의 관광객 이용행태 분석결과

표 4. 여름 및 가을시즌 시간대별 이용행태 분석

구분 시간	W								S								P								합계	
	W1		W2		W3		W4		S1		S2		S3		S4		P1		P2		P3		P4			
	하	추	하	추	하	추	하	추	하	추	하	추	하	추	하	추	하	추	하	추	하	추	하	추	하	추
9시	13	30	15	22	13	15	8	-	11	3	2	5	-	-	-	-	5	2	2	6	-	-	-	-	69	83
10시	25	75	36	7	-	-	-	-	3	7	12	10	2	5	50	2	19	62	28	16	2	-	-	-	177	184
11시	52	133	122	70	80	-	3	-	24	27	4	14	-	-	-	4	52	60	8	13	-	11	-	-	345	332
12시	49	42	75	52	-	24	-	-	10	18	44	126	-	-	-	-	40	47	14	20	-	4	2	-	234	333
13시	27	173	93	272	15	3	1	-	11	14	4	225	-	-	-	-	14	23	8	41	-	-	-	-	173	751
14시	117	61	59	50	61	17	-	-	10	11	-	33	-	-	-	-	-	38	5	30	-	-	-	-	252	240
15시	65	52	51	76	40	3	-	2	1	36	-	19	17	-	-	-	3	22	6	36	-	-	-	2	183	248
16시	91	61	16	107	24	23	-	-	6	8	-	6	14	-	-	-	4	7	8	18	-	6	-	-	163	236
17시	80	68	34	77	32	3	-	-	9	11	1	2	20	-	-	-	13	48	3	12	-	6	-	-	192	227
18시	71	36	51	34	23	-	2	-	5	2	-	5	20	-	-	-	8	28	4	5	-	2	-	-	184	112
19시	41	28	29	20	7	4	-	-	2	-	-	-	23	-	-	-	3	5	9	-	-	1	-	-	114	58
20시	62	16	21	12	5	-	-	-	-	-	-	-	-	-	-	-	6	5	-	-	-	2	-	-	94	35
21시	24	13	4	7	-	-	-	-	-	-	-	-	-	-	-	-	6	3	-	-	1	-	-	-	35	23
소계	717	788	606	806	300	92	14	2	92	137	67	445	96	5	50	6	173	350	95	197	3	32	2	2	2,215	2,862
합계	1,637(73.9%)								305(13.7%)								273(12.3%)								2,215	2,862
	1,688(58.9%)								593(20.7%)								581(20.3%)									

* 상단 우측 합계란에 있는 수치는 하계시즌(2215)과 추계시즌(2862)의 수치는 time-lapse 조사를 통해 관찰자의 육안관찰에 의해 나타난 시간대별 형태밀도의 합이며, 하단의 합계는 이를 각 이용행태별로 구분해 빈도와 비율을 표기한 것임

1) 이용행태의 유형별 분석결과

월성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다양한 이용행태를 Walking(서서 하는 행위), Seating(앉아서 하는 행위), Playing(놀이/유희) 등으로 구분하여 하계시즌(8월 중순)과 추계시즌(10월 중순) 별로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하계시즌과 추계시즌의 이용행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빈도가 높은 이용행태는 서서 하는 행위(W)>앉아서 하는 행위(S)>놀이/유희(P)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계시즌에는 Walking(서서 하는 행위)이 73.9%, Seating(앉아서 하는 행위)이 13.7%, Playing(놀이/유희)이 12.3%로써, 절대적으로 서서 하는 행위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에 추계시즌에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이용행태가 발생하였으나, Walking(서서 하는 행위)가 58.9%, Seating(앉아서 하는 행위)이 20.7%, Playing(놀이/유희)가 20.3%로써 이용행태의 발생빈도는 동일하였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후 1시부터 2시경에 통행위주의 서서 하는 행위의 빈도가 높아지는 반면, 앉아서 물, 음식을 먹는 행위는 정오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놀이/유희활동은 10시부터 나타나, 오후 5시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여름 무더운 시기에는 관광객들이 관광매력이 더 높은 첨성대, 안압지 등으로 이동하면서, 경주 월성을 스쳐가는 하나의 선적(線的) 경유지형 관광통로로 방문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반면, 가을시즌에는 경주 월성 자체를 단일 관광 목적으로 머물면서 다양한 동적인 문화체험형 관광행태(사진촬영, 자전거 탐방, 피크닉활동 등)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하계시즌 이용행태 결과

하계시즌 이용행태의 분류유형별 비율의 경우 가장 빈도가 높은 이용행태는 서서 하는 행위(W)가 73.9%(1,637/2,215), 앉아서 하는 행위(S)가 13.7%(305/2,215), 놀이/유흥(P)가 12.3%(273/2,215)로 활동유형 순이다(표 5 참조).

첫째, 서서 하는 행위(Walking)의 이용행태는 단순 보행 위주의 걷는 행위(통행)/유모차 포함, 침성대, 동부사적지에서 안압지, 박물관으로 이동하는 통행위주의 도보통행행위가 43.8%(717/1,637)로 가장 높은 이용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성곽 토성 위를 탐방, 걷거나, 산책하는 모든 행위 등은 37.0%(606/1,637)로 나타나며, 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탐방의 이용행태인 안내판 읽기, 자녀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등 행위 등은 18.3%(300/1,63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재 월성에 이용행태가 단순히 월성에서 석빙고를 관람하고, 안압지 또는 침성대 방향으로 이용하는 단순 통행(path)로 밖에 역할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된 원인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이 부재해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다양한 활동수요를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월성에 다양한 역사기행 및 문화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해 이용자의 다양한 야외활동 수요를 적극적으로 유발할 필요성이 높다.

둘째, 앉아서 하는 행위(Seating)의 이용행태는 앉아서 안내지도, 책 등을 보든지 아니면 토론, 대화 등을 위해 토성 위를 탐방, 걷거나, 산책하는 모든 행위 중 잠시 동안 머물면서 행해지는 적극적인 이용행태가 31.5%(96/3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앉아서 휴식, 사색 등 수동적 이용행태가 30.2%(92/305)의 비율을 보이며, 앉아서 하는 행위(Seating)의 이용행태 중 물, 음식 등 식음피크닉과 관련된 이용행태가 21.9%(67/30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월성에 다양한 역사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의 도입 외에도 이용객이 잠시 동안 경주를 관광하면서 수목이나, 그늘에서 휴식할 수 있는 야외벤치, 파고라 등 역사환경의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야외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한 피크닉 위주의 이용행태는 특히, 점심시간대에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단체관광객들을 위하여 잠시 그늘에 앉자 설 수 있는 각종 야외편의시설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놀이/유흥(Playing)의 이용행태는 사진촬영 위주의 역사문화 유적촬영의 이용행태가 63.4%(173/2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석빙고와 선덕여왕 포토존에서는 젊은 연인층 및 가족단위 이용객들의 사진촬영을 볼 수 있고, 부용 등 야생화 단지에서 사진촬영 행태와 자전거타기 등의 타기 및 보행 등의 활동유형이 34.8%(95/273)로 비교적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피크닉형 자전거 운동활동의 경우 특히 젊은 연인층과 외국인 관광객들에서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이용자 계층들을 위한 자전거 탐방을 위한 탐방도로의 조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 추계시즌 이용행태 결과

추계시즌 이용행태의 분류유형별 특성에 있어서, 가장 빈도가 높은 이용행태는 서서 하는 행위(W)가 58.9%(1,688/2,862), 앉아서 하는 행위(S)가 20.7%(593/2,862), 놀이/유흥(P)가 20.3%(581/2,862)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첫째, 서서 하는 행위(Walking)의 이용행태 중 토성 위를 탐방, 걷거나, 산책하는 모든 행위 등은 47.7%(806/1,688)로 하계시즌의 37.0%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단순 보행 위주의 걷는 행위(통행)/유모차 포함 침성대, 동부사적지에서 안압지, 박물관으로 이용하는 통행위주의 도보행위가 46.7%(788/1,68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일 수 있다. 그 다음 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탐방의 이용행태인 안내판 읽기, 자녀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행위 등은 5.4%(92/1,688)로 여름시즌의 18.3%에 비해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경주 월성의 추계시즌 이용행태가 무더운 여름에 비해 가을에는 성곽위의 토성을 탐방하면서 월성의 생태회랑을 둘러보는 탐방행태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경주월성에서 토성 위를 산책하거나 석빙고를 관람하고, 안압지 또는 침성대 방향으로 이용하는 단순 통행(path)은 어느 정도 지속되나, 적극적인 역사문화 탐방형의 이용패턴을 도입한다면 경주 월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활동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앉아서 하는 행위(Seating)의 이용행태 중 앉아서 물, 음식 등 식음피크닉 활동유형이 75.0%(445/593)의 비율로 나타나며, 하계시즌의 21.9%(67/305)에 비해 높은 이용행태를 나타났다. 반면, 앉아서 안내지도, 책 등을 보든지 아니면 토론 등 토성 위를 탐방, 걷거나, 산책하는 적극적인 이용행태가 23.1%(137/593)로 하계시즌(31.5%)에 비해 감소된 비율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계시즌의 이용객들은 피크닉 이용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단체관광객들의 경우 잠시 경주 월

표 5. 이용행태의 행위비율 및 순위

이용행태	여름			가을		
	행위 빈도 (행위수/전체행위수)	행위비율	순위	행위 빈도 (행위수/전체행위수)	행위비율	순위
서서 하는 행위(Walking)	1,637 /2,215	73.9%	1	1,688 /2,862	58.9%	1
앉아서 하는 행위(Seating)	305/2,215	13.7%	2	593/2,862	20.7%	2
놀이/유흥(Playing)	273/2,215	12.3%	3	581/2,862	20.3%	3

성에 앉자 설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야외편의시설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놀이/유희(Playing)의 이용행태는 사진촬영 위주의 역사문화 유적촬영의 이용행태가 60.2%(350/581)로 많이 나타나며, 여름시즌처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로 석빙고와 선덕여왕 포토존에서는 젊은 연인층 및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사진촬영 이용행태를 볼 수 있고, 부용 등 야생화 단지에서 사진촬영 행태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자전거 타기 보행 등이 활동유형이 33.9%(197/581)로 하계시즌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특히 젊은 연인층에서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2) 시간추이별 이용행태 분석결과

(1) 하계시즌 이용행태 분석결과

하계시즌 이용패턴이 가장 현저한 시간대는 11:00이고,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14:00 이후 다소 증가하지만 이용활동 시간대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방문한 이용객들의 가장 높은 이용행태가 나타나는 시간대는 11:00~12:00 시점으로 전체 이용행태의 약 15.6%(345/2,215)이며, 또한 14:00~15:00 시간대에 11.4%(252/2,215), 12:00~13:00시간대 10.6%(234/2,215)로 나타났다. 특히, 13:00~14:00시간대는 여름에 햇빛이 가장 강렬하기 때문에 전후시간대에 비해 이용빈도가 7.8%(173/2,215)로 약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1:00시 이후는 1.5%(35/2,215), 저녁 20:00~21:00 시간대는 4.2%(94/2,215), 오전 9:00~10:00시는 3.4%(69/2,215) 등은 거의 이용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경주 월성에 내부 야간조명시설이 열악하고, 치안상태가 좋지 않아 이용객들이 야간에는 거의 경주 월성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향후 야간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이용시간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경주월성의 하계시즌 시간대별 관광객들은 주로 오전 11:00~14:00 시간대에 이곳을 방문하여, 점심시간대 이전 또는 이후에 월성을 둘러 본 후, 주변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체관광객, 동호인모임, 유치원 등이 월성에서 단체로 모여 간단한 피크닉 겸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월성이용자의 하계시간대별 이용패턴을 볼 때, 여름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녹음식수와 그늘이 있어서 다소 경주관광의 불편함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방문자가 몰려 식생생육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2) 추계시즌 이용행태 분석결과

추계시즌 방문객들의 가장 높은 이용행태가 나타나는 시간대는 13:00~14:00로 이용행태의 약 25.2%(751/2,862)로 나타나며, 주된 시간대별 이용행태의 빈도는 정규분포의 형태처럼 13:00 이후 가장 가파른 형태로 나타나는 특성이 현저하다(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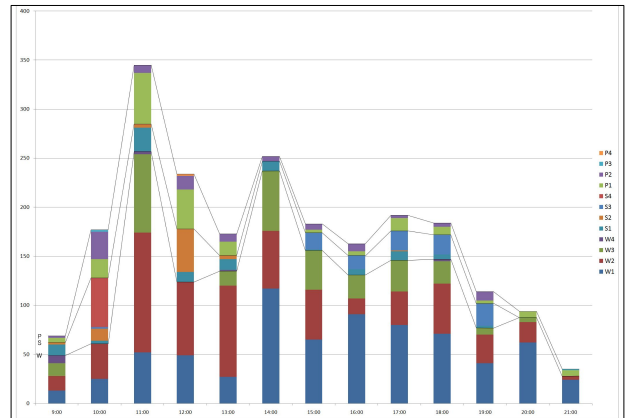


그림 1. 하계 시간추이별 이용행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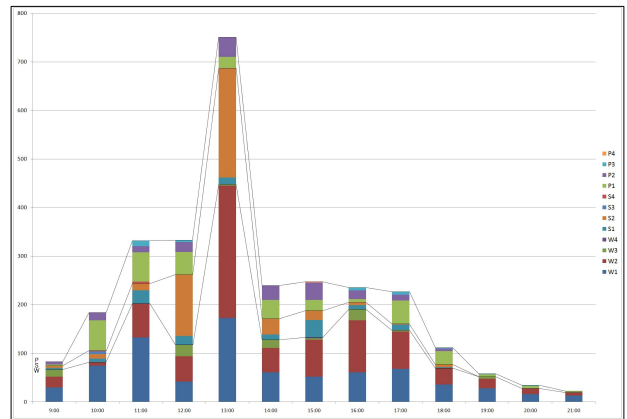


그림 2. 추계 시간추이별 이용행태 분석

림 2). 또한 12:00~13:00 시간대의 이용활동은 11.6%(333/2,862), 12:00~13:00 시간대 11.5%(332/2,862)로 조사되었으며, 21:00시 이후는 0.8%(23/2,862)에 불과하다.

월성의 추계시즌 관광객들의 이용행태는 하계시즌의 경우, 오전 11:00~14:00 시간대에 이곳을 가장 많이 방문한 것에 비해 13:00~14:00 시간대에 25.2%가 집중하는 차이점이 있다. 이용행태는 앉아서 물, 음식 등을 먹는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더운 여름시즌보다는 가을철에 방문객들이 11:00시부터 월성 내부에 진입하여 산책 과 사진촬영 등 활동 후, 계속 체류하여 피크닉 활동을 발생하였다. 따라서 점심시간대 이후에 월성을 둘러 본 후, 경주 월성의 간단한 산책 등과 사진촬영 등을 이용행태가 나타났다.

3) 경주 월성 공간별 이용행태

경주 월성은 공간적으로 진입공간(안압지 방향, 동부사적지 방향), 석빙고, 산재된 이동통로 및 산책로, 토성성곽회랑, 휴식쉼터, 초목 및 녹지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월성의 주된 보행탐방로는 역사공간, 휴식공간, 관람공간, 녹지공간, 산책공간 등으로 기능이 명확하며, 각 특색별 건강, 문화, 체육, 여가활동 등을 유발하고 있다. 표 6을 보면, 현재 경주 월성을 방문하는

표 6. 경주 월성의 주요 지점별 빈도현황

구분	하계		추계		빈도합계	합계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A-1	안압지방향 입구 → 석빙고	135	18.3	85	18.3	220	18.3
A-11	안압지방향 입구 → 동쪽 코스모스가든	26	3.5	20	4.3	46	3.8
B-2	동부사적지방향 입구 → 서쪽 코스모스가든	135	18.3	86	18.5	221	18.4
B-3	동부사적지방향 입구 → 월성 맨 서쪽	2	0.2	0	0	2	0.1
1-2	석빙고 → 서쪽 코스모스가든	134	18.1	68	14.6	202	16.8
1'-2	석빙고 → 서쪽 코스모스가든(성곽)	4	0.5	1	0.2	5	0.4
1-12	석빙고 → 선덕여왕 포토존	35	4.7	31	6.6	66	5.5
2-3	서쪽 코스모스가든 → 월성 맨 서쪽	5	0.6	2	0.4	7	0.6
2-5	서쪽 코스모스가든 → 상수리나무 근처	44	5.9	40	8.6	84	0.7
3-4	월성 맨 서쪽 → 월정교 근처	2	0.2	0	0	5	0.4
3'-4	월성 맨 서쪽 → 월정교 근처(성곽)	4	0.5	1	0.2	5	0.4
4-5	월정교 근처 → 상수리나무 근처	7	0.9	0	0	7	0.6
5-6	상수리나무 근처 → 배드민턴장	51	6.9	40	8.6	91	7.6
6-7	배드민턴장 → 화장실 근처	29	3.9	16	3.4	45	3.7
6-12	배드민턴장 → 선덕여왕 포토존	35	4.7	30	6.4	65	5.4
7-12	대나무 군락 → 선덕여왕 포토존	8	1.0	6	1.2	14	1.2
7-8	대나무 군락 → 화장실 근처	29	3.9	18	3.8	47	3.9
8-9	화장실 근처 → 남천방향 입구	9	1.2	4	0.8	13	1.1
8-11	화장실 근처 → 동쪽 코스모스가든	21	2.8	16	3.4	37	3.1
9-10	남천방향 입구 → 월성 맨 동쪽	4	0.5	0	0	4	0.3
9'-10	남천방향 입구 → 월성 맨 동쪽	5	0.6	0	0	5	0.4
10-11	월성 맨 동쪽 → 동쪽 코스모스가든	10	1.3	0	0	10	0.8
합계		737	100.0	464	100.0	1,2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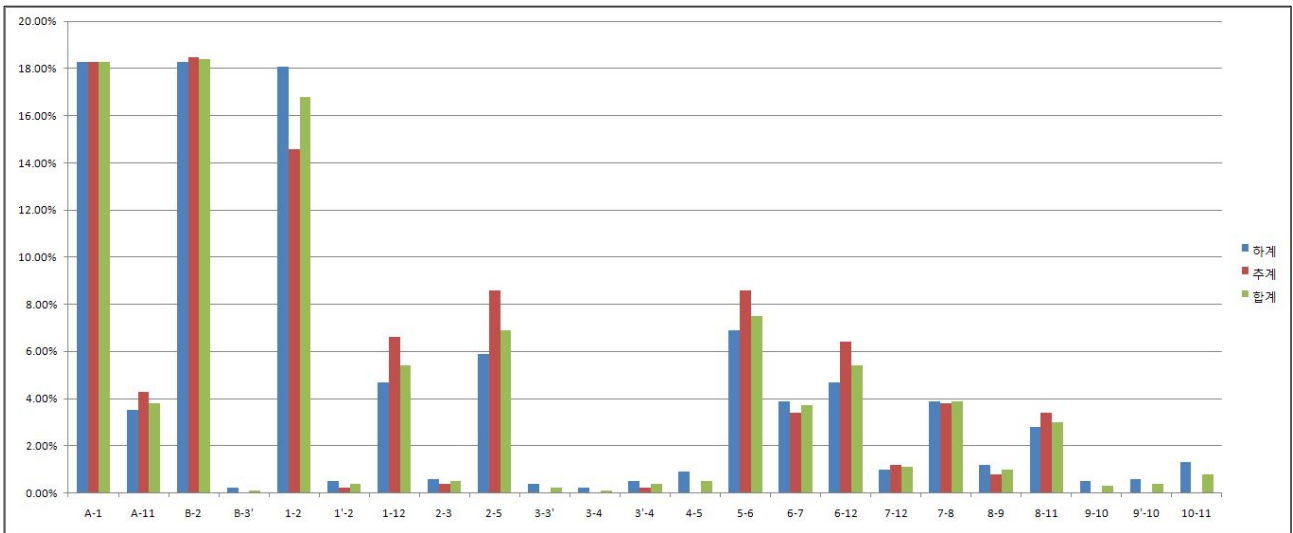


그림 3. 세부 탐방로별 이용빈도 분석

이동객들이 진입하는 출입구 역할은 안압지 방향에서 경주 월성 진입공간과 동부사적지 방향에서 경주 월성 진입공간으로 구분되며, 두 곳을 통해 경주 월성에 진입하는 비율은 50%대 50%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압지 방향은 주로 도로로 안압지 관람을 마친 단독관광객, 단체관광객이 다수를 차지하며, 주로 석빙고를 둘러보는 단순

관람형태이다. 동부사적지 방향은 상대적으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주로 첨성대와 대릉원을 통과하는 통로로 경주 월성의 주 이동통로를 산책목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성 주된 이용형태도 이 두 진입공간을 걸쳐 석빙고를 지나는 동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머무르는 비율은 18%를 차지하며, 이용객들이 주로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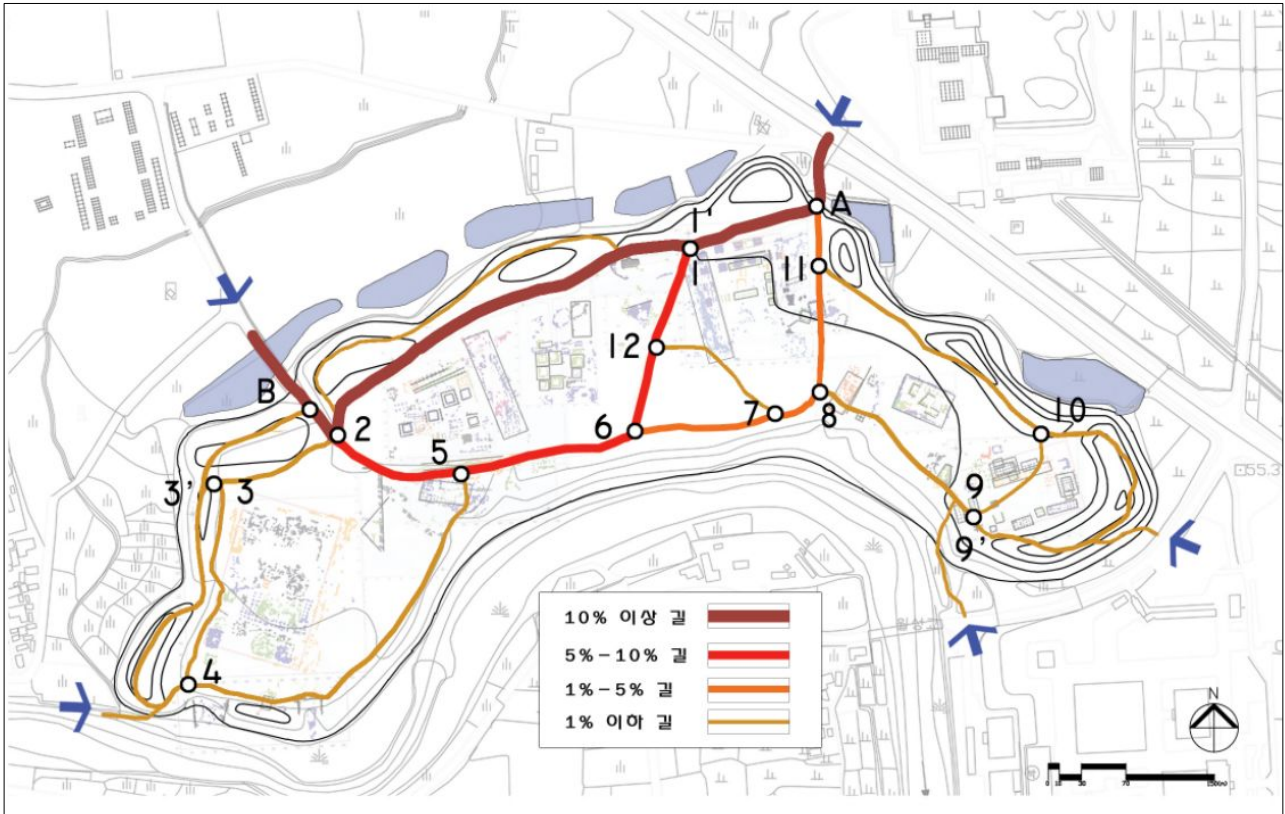


그림 4. 세부 탐방로별 이용행태 현황
 주: A. 안압지방향 입구, B. 동부사적지방향 입구 1. 석빙고, 4. 월정교 근처, 6. 배드민턴장, 7. 선덕여왕 포토존

진입로를 연결하는 산책탐방로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A지점은 하계시즌 135/737=18.3%, 추계시즌 85/464=18.3%로 나타나며, B지점은 하계시즌 135/737=18.3%, 추계시즌 86/464=18.5%로 나타났다.

경주 월성의 보행탐방로별 주된 이용행태가 가장 높은 산책로는 안압지 주진입통로와 동부사적지 방향의 주된 진입통로가 가장 10% 이상의 높은 탐방빈도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석빙고에서 선덕여왕 포토존(Photo zone) 사이의 탐방산책로와 동부사적지 진입공간과 외곽통로가 5~10%의 이동빈도를 보이며, 성곽외곽을 산책하는 공간은 1% 미만의 이용행태를 알 수 있다.

그림 4를 볼 때, 월성의 이용행태는 월성 내에 동부사적지 순환동선 주변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동, 서쪽 공간을 방문한 관광객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이유는 동부사적지 순환동선의 주변은 석빙고, 코스모스 등 볼거리가 있고, 자연석, 파고라 등 휴식공간이 있고, 또한 선덕여왕 포토존으로 역사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다. 성곽 순환동선은 소나무, 상수리나무 숲을 통과하지만 산책로 훼손문제와 식생생육문제 때문에 탐방객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여, 또한 일대 근처 체험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부족한 것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성곽 전체를 순환하는 이동통로 기능은 지역주민들이 산책, 운동,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집중된 이동패턴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높다.

V. 결론

이상에서 경주 월성을 한국 역사유적지 대표 대상으로 탐방하는 관광객들의 이용행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은 하계시즌(8월 중순)과 추계시즌(10월 중순)으로 구분하여 다음으로 이용행태별 방문빈도, 시간추이별 방문빈도, 경주 월성 공간별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주 월성의 주된 이용행태는 서서 하는 행위(Walking), 앉아서 하는 행위(Seating), 놀이/유희(Playing) 순으로 나타나고, 일반적인 역사문화유적지와 비교해 이용자들이 이용행태는 매우 단조로운 것을 알 수 있다.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첨성대, 동부사적지에서 안압지, 박물관으로 이용하는 통행위주의 도보행위(717/1,637=43.8%)를 벗어나 관광코스별 문화유산해설사와 자전거 및 전문 관광가이드, 성곽체험 등 다양한 야외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해 이용자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이곳에서 최소 3~4시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개선을 필요성이 있다.

앉아서 그냥 휴식 또는 쉬거나 사색/명상 등 매우 정적인 활동과 놀이/유희(Playing), 석빙고, 사진촬영장, 월성 내 식물등을 사진 촬영하는 것은 향후 다양한 야외행사와 신라궁궐 문화체험, 경주 왕경숲의 신라궁궐산책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높다.

둘째, 시간추이별 방문빈도를 볼 때, 하계시즌에는 주로 오전 11:00~14:00 시간대에 방문하며, 추계시즌 가장 많이 방문한 시간대는 13:00~14:00로 이용행태의 약 25.2%가 발생하였다. 하계시즌 이용패턴이 가장 현저한 시간대는 11:00이고,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14:00 시간대 이후 다소 증가하지만, 이용활동 시간대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추계시즌 주된 시간대별 이용행태의 빈도는 정규분포의 형태처럼 13:00 시간대 이후 가장 가파른 형태의 특성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월성방문이 단순히 보행활동 발생하기 아니라 계속 체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경관을 훼손을 최소화하며, 저밀도 중심의 편의시설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하계시즌 20:00~21:00 시간대는 4.2%(94/2215), 21:00 시 이후는 1.5%(35/2215)은 거의 이용패턴이 나타나지 않으며, 추계시즌 21:00시 이후는 0.8%(23/2,862)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현재 경주 월성에 내부야간조명시설이 열악한 것을 알 수 있고, 치안상태가 좋아지고 이용객들이 야간에도 경주 월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야간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이용시간의 이용확대도 필요하다.

셋째, 공간적으로 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진·출입은 주로 안압지 방향과 동부사적지 방향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된 이용행태가 가장 높은 산책로는 안압지 주진입통로와 동부사적지 방향의 주된 진입통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경주 월성의 주 진입로의 역할기능을 강화하면서 탐방객들을 월성 내 타 공간으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각 동선코스를 사전에 안내하는 표지판의 설치 등이 필요할 것이다. 안압지 주진입통로와 동부사적지 방향의 주된 진입통로가 되는 주동선을 방문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동선의 산책로와 주변 식생 생육 환경에 대한 정비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곽 전체를 순환하는 이동통로가 중부 순환통로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산책, 운동,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초적 편의시설 설치와 성곽 위 토성산책로의 복원을 고려해 높은 탐방수요에 따른 환경훼손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로 조사대상 역사유적지를 점적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근의 안압지, 첨성대 등과 선적으로 연결해 역사유적지간의 통일성, 일관성의 이미지 중요성을 파악하며, 사계절 이용행태 비교 등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관찰자에 의한 육안관찰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시간차 또는 간격촬영방법인 Time-Lapse 방법을 이용하여 행태밀도, 행태유형, 추적조사에 의한 동선분석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인용문헌

1. 강태호(2010). 고도경주의 역사문화경관 특성과 보존 대책.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4): 64-75.
2. 구은연, 박태욱, 장광집(2011). 환경지각적 특성을 고려한 가로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국제금융거리 가로환경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2(1): 13-22.
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09). 경주월성.
4. 김경제, 강태호(1998). 대학캠퍼스 옥외공간의 이용행태 조사연구. 동국대학교 논문집. 26: 199-231.
5. 金世泉, 許濬, 盧載鉉(1998). 자연공원 이용행태 및 만족도 평가: 마이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1(2): 279-293.
6. 김효경, 정성원(2010). 도시공원 내 오픈스페이스 이용자 행태 분석: 서울 숲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6(11): 37-44.
7. 남승호(2004). 신라 금성의 의미와 범위. 대구사학. 74: 1-28.
8. 박창규, 엄서호(1998). 기대와 지각된 성과가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2(2): 317-323.
9. 오현덕, 신중우(2004). 경주 월성 지하유구에 대한 GPR 탐사자료의 고고학적 해석.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7(4): 256-261.
10. 이영경(2008). 경주 국립공원의 이용만족도 평가: 단석산지구, 소금강산지구: 남산칠불지구를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2(1): 1-10.
11. 이태희(1997). 한국 관광지 이미지 측정척도의 개발. 관광학연구. 20(2): 80-95.
12. 이한상(2005). 국립에서 도성으로: 신라왕경을 중심으로: 경주 월성 동남쪽 왕궁유적 조사의 성과 남궁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신라문화재 학술논문집. 26: 265-290.
13. 임원현, 유주한, 손호기, 김정우(2009). 경주 월성의 생태적 특성 및 진단에 따른 관리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3): 39-48.
14. 정민재(2009). 역사문화유적지의 교육성·브랜드가치·선택속성이 관광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학과 박사학위논문.
15. 정용조, 박주성, 심우경(2010). 경주 월성의 해자(壕宇)에 대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2): 37-44.
16. 조정숙, 김남조(2001). 도시관광지로서 전통문화공간의 이미지: 서울시 인사동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개발논총. 14: 79-86.
17. 최승담, 최영석(2007). 전통문화관광지의 공간이미지 구성요인과 방문객 만족도와와의 영향관계. 서울도시연구. 8(2): 215-228.
18. 최연철, 김진선(2000). 근린공원의 주·야간 이용행태에 관한 기초적 연구. 도시·지역개발연구. 8(1): 191-211.
19. 최용완(1964). 경주 월성부근의 석물수점. 미술사학연구. 44: 505-506.
20. 홍형순, 이은엽, 오희영(2004). 아파트단지 옥외휴게공간의 이용행태와 만족도. 한국조경학회지. 32(2): 55-67.
21. 황기원(1995). 책 같은 도시, 도시 같은 책. 파주: 열화당.
22. Bigne, J. E. and M. I. Sanchez and J. Sanchez(2001). Tourism image, evaluation, variables and after purchase behavior: Inter-relationship. Tourism Management. 22(6): 607-616.
23.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The M.I.T. Press.
24. Heo, Sang Hyun(2008). Research on the use behaviors and satisfaction of Gyeongju Namsan, a historic national park.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6): 66-78.

원고 접수 일: 2011년 8월 30일

심사 일: 2011년 9월 14일 (1차)
2011년 10월 5일 (2차)

게재 확정 일: 2011년 10월 25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